



세계기독교 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WCNF 회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환영합니다!

북미주 및 해외 회원

Check는 WCNF 앞으로 쓰고 회원 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북미주 본부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WCNF 1946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전 화】(310) 324-8620

【이메일】wcnfusa@gmail.com

호 주 회 원

【전 화】411-879-778 (국가번호 +61)

【이메일】wcnfaustralia@gmail.com

한 국 회 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회원가입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지부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 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소】(우)066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전 화】(02)764-1227

【이메일】wcnfkorea@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 : 1005-902-610283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신한 : 100-031-06648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국민 : 089501-04-24145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우리 : 1005-103-276921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신한 : 100-030-594700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국민 : 089501-04-23184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분납과 납부가 편리한 CMS(자동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분들은 회보 등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혁 및 사업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은 간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하고자 1998년 미국 LA에서 원로 기독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교육, 봉사하는 것이 본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 1998년 4월 18일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창립
7월 연변과기대와 간호대학 설립협약서 체결
- 1999년 5월 연변과기대에 건강센터 개설 및 의사, 간호사 파송
- 2000년 6월 연변과기대 간호대학건물 기공식
학술토론회 개최
- 2001년 9월 연변과기대 간호학부 개교 및 교수 파송
- 2002년 9월 연변과기대 간호대학건물 준공.
(연건평 5815㎡, 5층)
- 2005년 12월 캄보디아 캄땡땡에 누가 건강센터 준공 및 보건 교사 파송
- 2006년 북한간호재건사업 및 Vision1000 사업시작
10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라이프대학에 4년 제 간호대학 개설 및 교수 파송
- 2008년 5월 한국-캄보디아 간호학술대회 개최, 라이프대 간호대학에 실습기자재 전달(약9만불)
- 2009년 6월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 설립준비
학술대회 간호분과 주관
- 2010년 6월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간호학 연구소 및 비전센터 준공
- 2011년 10월 미주 지부에서 평양과기대 방문
- 2012년 캄보디아 캄땡땡에 유치원 및 예배당 건축 지원
북한동포 생명 살리기운동(고아원 지원)
- 2013년 9월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에 간호대학 설립,
간호학과장 파송.
10월 창립 15주년기념 예배 및 영적각성 대부흥회
- 2015년 1월 한반도 국제 통일간호학술대회 및 제8차 정기총회
(미국 SF).
6월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위원회 발족
9월 평양과기대와 간호대학설립 협약서 체결
- 2016년 1월 남북통일대비 전략회의 및 기도회(미국 산호세)
북한의 홍수 피해지역에 이불과 진료소 복구비용 지원
- 2017년 5월 WCNF 제2보건진료소(함경북도 광산촌) 착공
(공동 연대사업)
- 2018년 1월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미국, LA)
- 2019년 11월 제1차 간호선교대회(한국지부)
- 2020년 WCNF 제3보건진료소 착공(캄보디아 몬노롬)
- 2021년 6월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마지막 졸업식
10월 WCNF 제3보건진료소 완공 및 봉헌
(캄보디아 몬노롬)
11월 WCNF 제4보건진료소 기공식
(아프리카 차드 만바)
- 2022년 6월 연변과기대 간호학부 20년사 발간

contents

- 04 총회장 인사말씀 - 안젤라 서
- 05 한국지부 회장 인사말씀 - 성영희
- 06 WCNF소식
- 12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 성진숙 선교사
- 14 캄보디아 소식(왕립농업대학교 보건실) - 신기조 선교사
- 17 네팔 선교사역 - 방영숙/윤종수 선교사
- 20 다문화 가정 아동 센터 사역 - 오은주화 선교사
- 22 세계기독교간호재단에 초대 되면서 - 석소정
- 25 Kurdistan 난민사역 - 이인자
- 28 몽골과 이스라엘 단기선교 - 장말란
- 30 캄보디아 몬노롬 단기 선교 - 한명자
- 33 신입 평생회원
- 34 미주 및 해외 지부 후원 내역
- 35 한국 지부 후원 내역
- 36 미주 및 해외 지부 회원가입 신청서
- 37 한국 지부 회원가입 신청서
- 38 한국 지부 CMS 신청서
- 39 WCNF 본부 및 각 지부 현황
- 40 (안내) 제12차 WCNF정기총회



인사 말씀

사랑하는 세계기독교간호재단 가족 여러분들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국제본부 총회장
안젤라 서

새로운 각오와 기대로 시작된 2022년이 많은 변화와 더불어 서서히 저
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 하루 하루가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날
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에는 한국을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리고
자 구원의 메세지를 들고 한국을 찾아오셨다가 평생을 헌신하신 선교
사님들이 은퇴후 살고 계시는 North Carolina의 Black Mountain
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린턴가의 어머니 베티 린턴할머니께서 96세
의 노령이시라 마지막으로 뵙고 복음의 빛진자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뜻 깊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린턴가는 1895
년도 유진 벨선교사로 부터 지금까지 4대째 변함없는 “조선의 그리스도
인 벗들” 로써 저희들 곁에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
아 저희 세계기독교간호재단도 계속해서 흑암의 권세속에 있는 자들을 위
해서 기도와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롬 1:14)

지금 우리는 팬데믹 이후 급진적 변화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권이며 우리는 어떤 상황과 결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선교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입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동안 저희 세계기독교간호재단과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
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분명히 저희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23)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차세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장학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고 지
난 9월에는 15명의 간호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날 선교회관으로 미래의 간호사들, 그리고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선교회원들과 함께
교제와 권면과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배 간호사님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소중한, 보람된 시간
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함께 나눌 기쁜소식은 저희 선교재단에 하나님께서 젊은 차세대들을 보내주셔서 여
러가지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2차 총회는 2023년 1월27일- 29일까지 선교지인 캄보디아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선
교, 하나님의 기쁨” (이사야 62:4)이며 비전 트립과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하
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4)

인사 말씀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지부회장
성영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어느덧 임인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해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 등 국내외 정세는 우리들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코비드19의 확산세가 일부 진정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회복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새롭게 갈 길을 인도해주시는 주님께서 올해 우리 재단의 간호선교를 위한 사업들을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고 이를 위해 앞에서 애써주신 임원들과 각 임상현장에서 헌신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2월에 개최된 한국지부 총회를 통해 시작된 제2차 장기사업계획의 원년인 만큼 앞으로 3년간의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교육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임상현장의 크리스천 간호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선교 위원회 중심으로 선교사들의 안전과 선교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재단의 조직 활성화와 순조로운 운영을 위한 임원 기도회를 실시하였으며 본부와 함께 캄보디아의 제3 보건진료소와 아프리카 차드의 제4 보건진료소 건립, 콩고 부냐끼리 무부야 간호대학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의료시설과 수준이 낙후된 곳에 적절한 간호와 조산이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힘써 왔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제 정세가 어려워 평양과기대 간호대학을 설립하는 시기가 늦추어 지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길을 열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을 사랑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내년에 새로이 구성될 회장단과 임원진들을 세워주시어 지난 24년간의 이룩하신 일들을 새롭게 계획하실 것을 믿으며 올 한 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 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WCNF 12차 정기총회와 국제 간호학술대회 및 비전 트립이 개최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부와 각지부의 사업활동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총회와 본 재단에서 설립하고 지원하는 선교기관과 선교사들의 활동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비전트립을 통하여 회원들의 선교마인드를 고취 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와 그 밖의 모든 상황을 순조롭게 조성해주시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해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WCNF 소식

01

국제본부
및 미주

1. 7월 28일-31일 미주회장단은 Black Mountain, North Carolina 에 위치한 한국선교사 은퇴마을을 방문하여 Betty Linton, Dr. Toppler 부부, WCNF 협력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선교단체의 대표인 Heidi Linton을 방문하여 한국인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후원금을 전하였다.



Dr. Stanley & Mia Toppler과 함께



Betty Linton사모님 가족과

2. 8월 7일 L.A를 방문하신 이송희 이사장님을 회장단이 방문하여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3. 9월 10일 이사회 후, 제1회 WCNF 박혜숙 장학생15명(미국거주 간호대학생)에게 각각 \$500씩 1기분 장학금을 수여 하였다. 2기분은 2023년 1월에 수여할 예정이다.



4. 10월 21-22일 동안 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 Conference에 참여하여 WCNF Booth를 열고 많은 방문객들에게 WCNF를 홍보하였다.



5. 콩고 부냐끼리 무부야 조산간호대학 (BMCC) 설립을 위해 8/7, 9/7, 11/8일에 한국, 콩고, 미국에서 on-line으로 T.F. Meeting을 가졌음. 간호대학 설립에 필요한 Curriculum, 교수진, 건축 예산등에 관한 토의를 하였고 최관신 선교사님이 콩고로 보낸 교육기자재를 실은 컨테이너가 콩고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려오다.
6. 제12차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위하여 호주, 한국, 미국의 회장단이 6/16, 7/21, 8/18, 9/22, 10/27에 모여 전반적인 의논을 하다.
7. 미국 국제 본부에서 서명룡 특별감사가 2021년 재정감사를 실시하다.
8. WCNF 국제본부에서 on going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들 중에는 매주 월요일 함께 하는 비대면 기도회가 있으며, 홀수달에는 이사회, 짝수달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open to public 선교기도회가 있음. 또한 매달 회원 생일 카드 보내기, 전화 방문, 원로이사님 방문, 노약자회원 섬김봉사등이 있다.
9. 콩고의 Bunyakiri Mubuya Christian College 간호학부는 2023년 1월 5일 개교를 앞두고 (전) 서남대 간호학과 학과장 이옥주 교수를 초대학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에 교양학부에 강의 지원한 교수들은 이미 채워졌으나 앞으로 교육학 및 간호학을 강의할 교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콩고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공부와 기숙사 생활을 하기 어려우므로 1년에 \$300을 지원하면 (기숙사 및 식비 \$100, 학비 \$200) 한 학생을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국제본부에서 주최하는 Family Camp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WCNF Family Camp

모이자 기도하자 은혜받자

WCNF징검다리 모임과 함께 아래와 같이 캠프를 준비하였으니, 모두 오셔서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 시 2023년 7월 31일 (월) – 8월 4일 (금)

장 소 YWAM Allim Pnewma Spring, Monroe, Washington State, USA

강사진 오대원 David Ross 목사님, Peter Yang 목사님

수련회 참가비 \$600 (5박 6일 숙식, tour 포함)
Airport pick-up service: \$30/ 1-2명; \$15/ 3명 이상

▶ **신청방법** - [미국, 호주 등] wcnfusa@gmail.com
[한국] wcnfkorea@hanmail.net

▶ **신청기간** - 1차신청 : 2023. 3.31 (참가비 \$10면제)
2차신청 : 2023. 5.31

▶ **등록비 계좌**: 미주후원금계좌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 3251-5739-7451

Hanmi Bank: Routing#:122039399, Account# 500298650

입금시 _ (WCNF Family Camp신청) \$100 명시바람 / 입금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반납 안됨

▶ **등록비 계좌**: 미주후원금계좌 _ (WCNF Family Camp신청) \$100 신청완료, 반납 안됨

WCNF Family Camp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소속지부	미국(), 호주(), 한국()			e-mail	
참가비 입금여부	\$600 입금 완료(), 사전신청비 \$100 완료()				
계좌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 3251-5739-7451 Hanmi Bank: Routing#:122039399, Account# 500298650				
문의처	[미주, 호주] wcnfusa@gmail.com [한국] wcnfkorea@hanmail.net				

참여를 희망하며 캠프를 위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사용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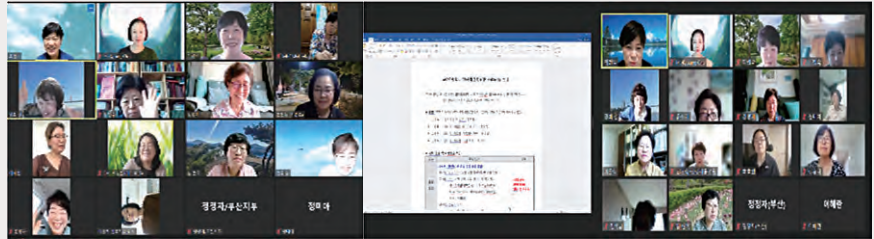
성명 :

(인)

1. 회장단회의 3회 - 하반기 사업 및 활동 과 예산집행에 대해 점검 하였다.

2. 2/4분기 임원회의 및 3/4분기 이사회

- 정관변경에 따른 각위원회 규정을 심의하고 제12차 총회 (2023년 1월, 캄보디아)에 대한 공지와 함께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회원참여 독려를 권하다.
- 사업 및 예산집행, 추경을 심의하였다.



3. 연변과기대 간호학부 20년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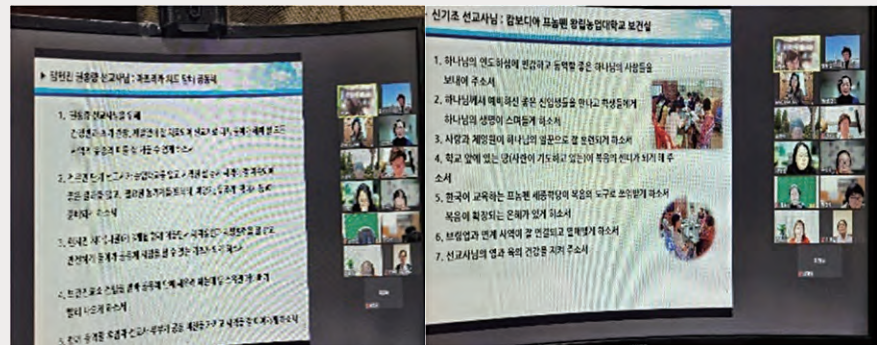
WCNF의 첫번째 사업으로 2001년 설립된 연변과기대 간호대학이 20년간 34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나, 부득이 2021년 6월에 문을 닫게 되었다. YUST간호학부 20년 역사를 정리,보존하고자 2020년에 2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위원장:유숙자) 하였으며, 2022년 6월 15일에 38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YUST 간호대학의 설립, 학교운영과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및 후원자들 그리고 졸업생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책을 전달하였다.



4. 7월 4일 국제본부 안젤라서 총회장이 한국지부회관을 방문하였으며, YUST간호대학 20년사 책을 유숙자 편찬위원장이 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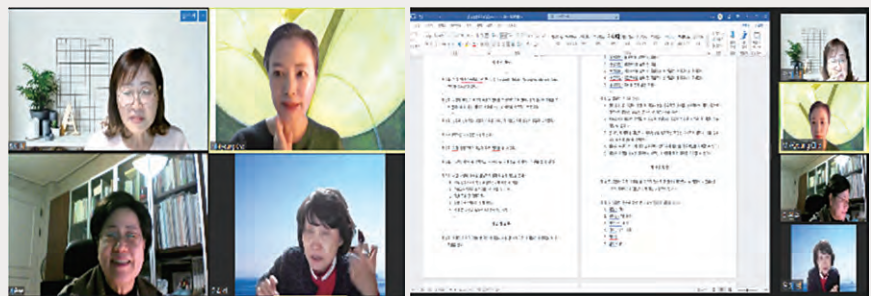
5. 8월19일 국제본부연석회의에서 유숙자위원장이 PUST 간호대학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하였다. 국제본부에 PUST설립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여 결정함. 유숙자 설립위원장, 한국의 소향숙 부위원장, 미국의 마리아 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각국의 회장과 재무 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6. 최정숙 선교위원장은 5월 27일과 10월 27일에 중보기도회를 2회 개최하였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는 임현진 선교사의 활동을 들었으며 각국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7. 5월11일 이병숙 교육위원장은 최관신 선교사와 아프리카 콩고 부냐끼리 무부아 간호대학 설립에 필요한 교재와 실습용 기자재 및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다.



8.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위원장인 조미경이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9. 북한보건의료협력과 발전비전 세미나(6.11)에 임원진과 위원 5명이 참석하였다. COVID19상황의 북한 보건의료현황 및 보건의료 방안수립 파악에 도움이 되었다.



10. 성영희 회장이 6월2일에 충북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WCNF 소개와 함께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는 특강을 하였다.

11.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시는 임현진, 권홍량 선교사 내외분을 만나(6월 24일) 선교지 현황과 사역에 대해 소식을 나누고 앞으로의 사역방향을 모색하였으며, 7월 25일에는 캄보디아 왕립 농업대학 보건실에서 사역을 하시는 신기조 선교사님을 만나 사역에 대한 열매와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교제를 하였다.



12. 교육위원회(위원장:이병숙) 주관으로 간호 리더십 워크숍을 11월 21일에 on-line으로 진행하였다. 상반기 리더십세미나 참석자 중에서 11명이 참여 하였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글 | 성진숙 선교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 시편 23:1~6

본문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사랑스런 양 되시는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시입니다.

갈 2:20절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는 말씀이 나의 선교의 원동력이었다면(즉 내가 선교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것), 이 말씀은 내가 선교사로서 오늘 이 시간까지 선교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도 그리하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신앙 고백이요, 또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 모든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덕분이고 은혜임을 알고 나니 난 참으로 물염치한 사람이고 이기주의자이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인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다가 죄인 중의 괴수인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이 우둔하고 무지한 자의 뺨속까지 그리고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감동을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70년이 넘도록 지켜 보호, 인도하시고 나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계시다는 저의 고백입니다.

본문은 :

- 1) 하나님의 목장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이고
- 2) 하나님의 목장은 나의 가장 좋은 안식처가 되며
- 3) 하나님의 목장은 나의 잔이 넘치는 곳

(1) 1절에서 하나님의 목장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최상의 곳이라는 고백인데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이론의 말이 아니고 다윗의 철저한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얻은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젖을 먹고 있는 아기가 포근하고,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안기어 이 아기에게 맞춤된 맛과 온도의 젖을 먹을 때의 그 만족함!!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필요치 않고 부럽지 않죠. 정말 최상의 것을 소유했기에 다른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 이것 만큼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죠!

성경의 예로 보물 상자를 발견한 농부, 또는 최상의 진주를 찾은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여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심의 비밀을 터득한 우리에게겐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영화도 부럽지 않다는 신앙의 고



백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2) 2~3절에서 하나님의 목장은 나에게 가장 좋은 안식의 장소라고 말해줍니다

“푸른 풀밭”은 풍요함을 말합니다. 인간의 통치함에는 늘 부족하고 불평과 다툼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풍부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대의 복이 넘쳐흐른다고 말해줍니다. “실 만한 물가”란 진정한 평안과 휴식과 평강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은 주님의 곤고함에 처한 영혼들을 생명수 푸른 강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요 10:10에서 선포하셨습니다.

(3) 4~5절에서 하나님의 목장은 내 잔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의 역할과 원수의 목전에서 상(보통 밥상이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의 만찬=완전한 통쾌함!!)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완전히 보호 인도하신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서 “잔”은 컵도 그릇도 아닙니다. 양들의 우리 안에 돌로 만들어진 기다란 구유를 말합니다. 양들이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에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우리 안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돌 구유에서

넘쳐흐르는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만족한 몸으로 행복에 젖어 평안한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구유를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말씀에 목말라하고 고대하면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말씀으로 매일매일 충족시켜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의 잔은 무엇이고? 내 잔에서 넘쳐흐르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요...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각 개인마다 답이 다를 것입니다. 옳고 옳지 못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묵상해 볼만 합니다. 나의 70여 년의 삶에서 저는 주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과 영적 체험을 했기에 자칭 도마 같은 나도 이제는 6절 말씀처럼 불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기적의 체험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닫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고 감히 간증합니다. 3절 말씀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만큼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교사의 순례의 길을 걸으며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전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왕립농업대학교 보건실에서 드립니다



글 | 신기조 선교사

잠시 잠깐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2022년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지루한 장마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태풍,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계시는 선교 가족님께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대 수술을 하고 돌아와서 말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차차 좋아져서 제 느낌에는 이전처럼 회복되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이 있었지만 회복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늘 감사할 뿐입니다. 6월 말경 심한 어지럼증이 있어서, 7월 한 달간 한국에 가서 이석증으로 진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로 건강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비 세종학당이 2020년 하반기 - 2021년에 진행되었고, 일반 세종학당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난 5월 5일 세종학당 재단의 실사를 받았고, 6월 30일 프놈펜 **세종학당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놈펜 세종학당이 시범적으로 6개월간 시행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 계속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잘 진행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9월 16일 10:00 프놈펜 세종학당 개원식(Opening Ceremony)이 있었고, 17일은 한국문화 체험으로 윷놀이와 제기차기,



일반 세종학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시단의 방문

송편과 식혜를 맛보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놈펜 세종학당 개원식에 덕성여대에서 총장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이 방문하였고, 캄보디





아 대사를 비롯하여 대사관의 직원들이 초대되어 방문하였고, 초대를 받은 여러 한국인들도 방문을 하였습니다.

음향 전공이신 선교사님께 개원식에 앞서서 행사가 진행될 장소의 음향시설 점검을 부탁을 드렸는데, 대강당에는 이동형 스피커 2대가 전부였는데, 행사를 위하여 선교사님 개인 음향기계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할 뿐이었지요. 행사가 끝난 후 음향에 대하여 우리 대학(RUA) 총장께서 프놈펜 세종학당 학당장(부총장)께 “행사가 있을 때에 그 분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행사 후 식사시간에 선교사님을 총장께 인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원식에서 사람들은 덕성여대 총장과 캄보디아 대사와 사진을 찍으려고 아단들이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에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에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대학에서는 세종학당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방문하실 많은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음악, 축구, 태권도, 케이팝... 새롭게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교를 원한다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이번 프놈펜 세종학당 개원식을 마치며 어학당(Language Center)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위치은, 본나, 페트라 1학년 남학생 3명과 여학생 타림입니다. 기회를 만들어 쉐터 하우스로 초대를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교제하며 긴 복음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학 내에 학생들이 많지만 그 중에 그들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의 대상자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쳐가는 사람들이야 많이 만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NGO 브링업인터내셔널 주관으로 영어캠프가 캄보디아 장로교신학교에서 2주간(8월 15일 - 26일) 열렸습니다. 2018년, 2019년 계속해오다 2020년-2021년은 코로나로 열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50-60명 정도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이 한국과 필리핀에서 와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바탕방에 있는 꺼짜 교회를 영어 캠프 선생님들과 함께 캠프 기간 중 주말에 방문하였습니다. 담당 교역자인 눈 전도사와 가족들, 그리고 영어 캠프 봉사자들 모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꺼짜 교회에도 영어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필리핀 선생님들께 영어선생님 파견을 부탁하였습니다. 캄보디아 그리스도인과 필리핀의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었습니다.

RUA(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에서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유치원을 열었으면 한다고 사란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필리핀 선생님들과 브링업 실무자가 영어캠프 프로 프놈펜에 와 있었기에 필리핀 선생님들 중

책임자 두 분과 브링업 실무자가 우리 대학 유치원 담당 부총장을 만나서 유치원 개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학교와 브링업인 터내셔널이 공식적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란은 9월 5일 - 7일까지 방콕에서 열리는 “SEAOHUN 2022 International Conference Catalyzing One Health Citizens of the Future” 에 Project Leaders로 참석하였습니다. 썬피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란은 박사과정을 마치면 영어권에 가서 동물병원에서 실제적인 임상경험을 2-3년 쌓고 돌아와 대학 사역과 개인 Clinic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란을 통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체잉원은 RUA(Royal University of Agriculture) 스페인 연수를 다녀온 후, 학생들을 가르치며 유기농 비료를 만들고, 책상 의자를 만드는 일을 대학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대학에서 일하면서 개인 Business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면서 열심히 석사과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함을 나누곤 합니다.

센터가 될 땅을 사란과 체잉원과 함께 보았습니다. 위치는 우리 대학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대학으로 들어가는 큰 길 길목에 있습니다. 준비된 땅에서 두세 집 건너면 우리 대학교입니다. 그러나 땅값이 예상금액보다 10배나 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일하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하는 것이라고. 사란에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란과 체잉원과 함께 일하실 땅입니다!” 사란과 체잉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사란과 체잉원)의 믿음을 보신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현지와 후원자 모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2.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3. 동역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기를
4.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신입생들을 만날 수 있도록
5.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땅(사란이 기도하고 있는)이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해주시기를
6. 프놈펜 세종학당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7. 사란과 체잉원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되도록
8. 만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스며들도록
9.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잘 수종들 수 있도록
10. 브링업과의 연계 사역을 위하여
11. 끼짜 교회를 위하여
12. 새로 건축되는 빠라이쩌 해송교회를 위하여
13. 우리 대학교의 대강당 음향시설(약 1만불)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14.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하여

신기조 선교사를 후원하실 분은 WCNF 계좌로 지정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후원 안내 참조)

네팔 선교사역



글 | 방영숙 선교사

네팔은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중심으로 중국, 티베트와 인도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옆에 방글라데시, 부탄, 파키스탄이 인접해 있어 이 지역에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아시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는 바람이 세계로 불어 가고, 여기에서 흐르는 물이 세계로 흘러가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10-40 window의 중심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여성자립지원센터 꼬필라홈 운영

네팔은 여성들의 위치와 권리가 아주 열악하고 카스트의 가부장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여성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꼬필라홈은 이런 여성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며 미래의 자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룹홈입니다. 그동안 지진 피해 여성들이 양재와 재봉교육을 받고 자립해서 나갔으며, 이제는 새롭게 네팔의 크리스천 여성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싸마야는 육군의 과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며, 레비카는 치과간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싸마야

는 의과대학에 다니다가 아파서 공부를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간호학교 2학년에 다니는 스리자나가 합류를 하였으며, 5년 동안 우리와 같이 지내고 있는 멘조씨는 그린트리 패션아카데미 마지막 과정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2. 그룹홈과 시설홈 운영 지원

네팔은 빈곤과 무지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아이들이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어지고 방치된 아이들이 대안가정을 이루어 같이 생활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시설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누와꽃에 6명의 체빵족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울홈을 후원하고 있고, 카트만두에서 고아들이 같이 모여 사는 파더홈(15명)을 돌보며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라이프 오브더 칠드런과 협력하여 마더그룹홈(5명 여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네팔 와일드플라워 제자훈련 사역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교회와 후원하는 그룹 홈의 아이들 중에서 믿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 아이들을 선정하여 청소년 제자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 책을 읽고 토의를 하며 영어로 에세이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선교지의 사역현장을 보고 경험하도록 하며, 자연을 탐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는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이 되자, 이제 이들도 우리처럼 자기의 그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개인적으로 경건훈련(QT)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4. 네팔 청소년 사회개발가 훈련사역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사회개발 프로젝트를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팀은 네팔 사회 속에서 여성의 권리신장과 연대라

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성팀은 차별 철폐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앙케트 조사를 하여,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이런 상황에서 부조리와 차별의 철폐와 해결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서약을 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책기관에 제안을 하며, SNS에 홍보하는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 네팔 청지기 훈련과 사랑 나눔 사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 물질을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150여 명의 아이들에게 10\$씩 장학 선물을 지급하고, 그 선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십일조를 떼어서 교회에 바치도록 하며, 그다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십일조를 떼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사랑 훈련을 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도록 하고, 저축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부모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으며,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주님의 참된 청지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6. 네팔 교회 협력과 건축지원 사역

네팔은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고 있어서 외국인 이 직접 전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이 법을 위반할 시는 감옥에 가게 되며 즉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교회와 협력하여 네팔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하여 자기들의 예배처소와 교회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진으로 파괴된 교회당 10개를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7개의 교회당을 건축하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개의 교회당이 건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과 이방의 땅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기도로 이 히말라야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를 양육하며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

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샬롬을 기도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 아동 센터



글 | 오은주화 선교사



살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
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5:21)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엄청나
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몸 둘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장 미워
하시는 죄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것도 나
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나의 생각과 이해 밖의 진리를 믿
음으로 마음에 간직하며, 감사와 찬양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의 마음
을 다 표현할 수 없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하
나님의 의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
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
라.”(빌2:12) 는 말씀이 오늘도 제 마음속에 새
겨지며 제 귀에 들려옵니다.

다문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사
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저를 위
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과

물질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모든 동역자님들 삶 가운데 주님께
서 주시는 은혜와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다문화 가정 아동 센터에서는 주중과 주
말을 분리하여 주요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
다. 주중에는 방과 후 돌봄학교로 섬기며, 주말
에는 글로벌 주일학교로 섬기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학교는 현재 이주민 자녀 13명
과 다문화 자녀 2명 총 15명이 등록하여 참가하
고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카작, 타작, 우즈
벡, 러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총 7개국의 나
라 아동들입니다. 하교 후 오후 1시부터 센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15명의 아동들의 한국어 레
벨이 모두 달라 1:1 혹은 1:2로 한국어와 수학
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지도가 끝나면 간식
을 먹고 요일별로 진행되는 태권도, 영어, 과학,
신체활동, 음악, 미술치료, 마음치료 등등의 특
별활동에 참가합니다. 또한 여건이 허락되는 대
로 지역단체 및 기관과 협외하여 체험학습도 진
행합니다. 지난번에는 TV 방송국을 방문하여
실제로 뉴스 아나운서 역할을 해보는 체험을 하
며 동영상도 찍는 재미나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빨간색의 아나운서 정장을 입혀 서투른 한국어

지만 열심히 진지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니지만, 법적 한국 국적으로 자라나며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기에 우리 지역의 어깨도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고, 한국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떤 지역의 초등학교는 학생 80%가 이주민 혹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2022년 8월에 발표된 2021년 인구 통계에 대한 통계청 확정 집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자녀 출산율은 0.808입니다. 조사 대상 198개 국가 및 지역 중 현재 2년 연속 세계 '꼴찌' 입니다. 2022년도 출산율은 0.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심각한 저 출산율 문제가 지속된다면 2070년도쯤에는 한국 인구가 3천만 정도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주일 글로벌 주일학교에서는 지난여름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교회와 연결하여 그 교회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 (13명과 형제 5명 포함하여) 총 18명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들 나이 또래의 수많은 아이들이 큰소리로 찬양하며 예쁜 모습으로 율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신기한 표정을 지으며 잘 따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성가대가 순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발표하는 모습을 뿔어지게 쳐다보며 얼마나 부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백명이 넘게 모인 주일학교 학생들의 통성기도 시간에는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부르짖는 어린이들의 기도소리에 우리 센터 아이들은 무서워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글로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8번째 된 것 같습니다. 새 친구도 참석하는 은혜가 있으며, 매주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슬람교권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상

황에서 이런 일은 기적입니다. 여름 동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주중에도 몇 차례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 사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 부모들의 동의를 얻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 실시 및 비전트립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부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매월 1회 진행 중입니다. 이주여성 한국어 교실도 시작하여 매주 2-3회 한국어 교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교회 의료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주민을 위한 의료사역도 처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치안을 담당하는 '다문화 치안센터'에서 중학생 중에서 주중에 한국어를 배울 이주배경 청소년을 담당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센터의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센터의 아이들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3. 동역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4. 방과 후 돌봄 센터와 주일 학교 섬김을 위한 사역자들이 많이 헌신하도록
5. 제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이 넘치며,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아동 센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동역자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감사드리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세계기독교간호재단에 초대 되면서



글 | 석소정 (국제본부이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떠 떠나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떠나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21:18)

오래전 내가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후, 필리핀 안재근 선교사님이 LA에 방문하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위의 말씀이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얼마나 저 말씀이 무서운 말씀으로 들렸는지 모른다. 저 말씀을 듣기 얼마 전 아이를 임신한 중에 911 테러를 뉴스로 보면서 내가 저기에 있었으면 저 빌딩을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라고 하면서 불안해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미래에 대한 계획과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인 아이였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 아이에게 최선의 미래를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결심했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았다. 하루하루 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안정된 미래를 가질

것이라 믿었고, 그렇기 위해서 내 노력과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선교사님 말씀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다. 내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나에게 떠 떠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 미래를 제시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생각보다는 무서운 벌주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한참 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저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정말로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무시무시하던 말씀이 따뜻하고 영광스럽게 느껴지게 된 것이다.

사실 지난 15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부부가 겪도록 허락 하셨다. 남편이 좋은 지역에 예쁜 카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고, 나는 대우가 아주 좋은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로써 오버타임을 밥 먹듯 하면서 주일날 교회도 잘 가지 못하고 돈 버는데 내 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십일조도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내가 일을 더 할수록 남편 비즈니스가 더 잘

안되었던 것 같다. 마켓에 가서 그로서리를 마음껏 사지도 못할 만큼 어려웠었다. 그때엔 내가 더 열심히 내 힘으로 일해야 그 지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병원 두 군데에서 밤일을 일주일에 6-7일, 즉 주 72-84시간 까지도 일했었다. 그런데도 너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교회 가느라 일을 쉴 수가 없었다. 일에 매어 사느라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했고, 내 능력과 내 열심을 의지 했었다.

그런데 남편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다. 카페가 있었던 빌딩 주인이 리스연장을 더 이상 해 주지 않아서 세입자였던 남편은 비즈니스를 정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다. 우리 이삼십 대에 모은 모든 돈과 부모님께서 빌려 주신 돈, 크레딧 카드로 긁어 모은 모든 돈이 들어갔던 25만불 상당의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날라간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까 하고 속상해했었는데, 그즈음에 권사님 한 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 하시는 거야 감사해! 하시는게 아닌가. 참... 그 권사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내 머리카락 까지 다 셀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내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욕심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빙 돌아서 가게 하고 있던 것을 오히려 바로 잡아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 주셨다.

처음엔 정말 절망적이고 한 번에 날아간 그 큰 돈이 아까웠었지만, 가게를 닫고 난 후, 마음에 막 쫓기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다. 더 이상 가게로 인하여 남편이 묶여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여행도 하고 주일날 교회도 갔다. 돈을 더 버는 것에 내 노력을 기울

이기 보다 교회와 주위의 생명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기쁘게 동참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3일이나 4일만 일하고 교회에서 VBS, PTA 등의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냥 교회 부역에서 매주 봉사를 기쁘게 했다.

그랬더니 다달이 나가던 크레딧 카드 빚도 빛의 속도로 갚게 되고, 나를 움아매던 여러 것들로 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주던 신분 문제가 해결 되고, 다운페이 할 돈도 없었는데, 여러 군데로 부터 예상치도 못한 도움을 받아 교회와 소그룹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집도 사게 되었다. 그리고 집도 빚을 내서 새 집처럼 고쳤는데, 일년 만에 그 빚도 다 갚게 해주셨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힘을 썼더니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나는 내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성령님이 띠를 띠워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재근 선교사님께서 하신 저 말씀이 너무 무섭고 별주는 것 같은 말씀이었다. 하지만 내가 맘대로 하던 내 삶에 실패하고 만신창이 된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내 삶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참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때 그 때가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때이다. 믿음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그 길은 축복의 길 꽃길일 것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길을 건도록 하셨을 때

베드로가 벌벌 떨며 두려움 속에 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을 시시때때로 자라게 하셨을 것이다. 그 믿음의 분량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에 까지 참여하게 하셨다.

내가 20년 전에 뱃속에 잉태한 상태로 911의 두려움 속에서 그 아이와 나의 미래를 걱정하던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전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 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눅 22: 32)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맡겨 주신 내 분복이 간호사란걸 깨달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에 돕는 손길이 되라고 초대받게 되면서, 회장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라고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간호사들은 다 바쁘다. 너무 할 일도 많고 바빠서 어찌면 내 삶에서의 우선 순위를 놓치게 될 때가 종종 있다. 일이 바빠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살짝 멀어지는 것에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 하기도 한다.

내가 경험한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돈은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불어나는 것이 아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원을 두고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 잘 운용하라고 주시는 도구이다. 내 삶에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잠자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간호사들은 바빠도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길 만큼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면 안 된다. 일이 바빠서 교회와 하나님의 생명들을 섬기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다면, 일을 줄여야 한다. 내 실패의 경험과 또 다시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일어난 경험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그리고 나를 세계기독교간호재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회장님, 이사님들과 주님께 감사 드린다.



Kurdistan 난민사역



글 | 이인자 (국제본부 이사)

저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라크 북쪽에 위치한 Kurdistan의 Sharia예지디 난민캠프와 인근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이라크 북쪽에 위치한 Kurdistan의 도후 (Dohuk)라는 도시에 UN에서 세운 Yazidi 족을 위한 난민 캠프로 단기 선교를 다녀 왔었습니다.

쿠르드족은 구약에 나오는 바빌론제국을 멸망시킨 메데 왕국의 후예로 2천여년을 나라 없이 지내다 1991년 Gulf전쟁 이후 북이라크 지역에 자치국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Yazidi족은 쿠르드족이지만 이슬람교를 따르지 않고 조로아스터교를 믿으며 신장 산에 고립되어서 살았으나 2014년 ISIS에 의해 남자들은 대량 학살을 당하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유린당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결국 집단 이동되어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과 달리 금년 사역에는 pandemic 탓도 있었겠지만 지원자가 겨우 9명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pandemic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장갑, 손세제를 넉넉히 준비해야했고 사역을 위해 가져가야 할 물건들은 많아 짐이 산더미 같은데 팀 중에 남자는 단 한명, 비교적 젊은 자매들이 더 수고하기로 하고 마음의 불안을 지우면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게다가 금년에 사역차 방문 하게 된 도시, 자호(Zaxo)

는 현지 선교사님 부부도 사역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현지사정에 익숙지 않은 곳이어서, 힘들게 소통하여 출발 이틀 전에야 의약품을 구입하여 짐을 정리하고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명의 사역자가 가지고 갈 짐은 21개 - 이 중에는 어느 발 넓은 자매가 donation받은 물품이 너무 많아 은근히 원망스럽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cash donation도 충분히 받았으니 추가 짐은 pay를 하고 공항에서 짐 옮기는 것은 현지에서 짐 날라줄 사람을 구하고 보수를 주면 될 것 아니냐며 태평한 모습에 조바심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몇 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번은 현지 선교사님, 뉴 비전 교회의 사역자들과 함께 zoom으로 만나고 한번은 베텔 교회에서 준비 겸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매일 금식기도 chain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측 못할 상황이 닥칠 때마다 얼마나 당황하며 걱정했을까 싶습니다.

LA공항에서 떠나 13시간 넘게 걸려 Turkey의 Istanbul공항에 도착해서 6시간의 layover 후에 이라크의 Erbil공항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의료기구와 약품이 잔뜩 들어있는 가방을 일일이 풀어가며 검사를 마치니 자정이 넘었고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버스에 올라 3시간을 달려 자호라는 도

시에 있는 선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24시간이상 잠도 못 자고 달려왔는데 짐 정리를 해야 하기에 사역은 다음날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지 선교사 패트릭과 안순자 부부는 터키에서 20년간 사역하시다 추방당하시고 요르단에서 2년 아랍어 교육을 받으신 후 이라크에 온지 6개월 정도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현지 젊은이들을 동원하셔서 의료, 안정사역 등의 통역과 어린이 사역의 보조 등으로 동역할 수 있는 조력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을 뿐아니라 쿠르드인, 예지디 인들, 요르단에서부터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온 자매까지 모두 영어에 능통하고 성품이 온유하며 맑아서 함께 일하는데 처음부터 마음에 안심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QT와 예배로 하루를 열고 아침식사 후 사역준비를 꼼꼼히 하며 예정된 Sharia예지디 난민캠프에 도착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낙심천만이었습니다. 모두 의기소침하며 몇 시간을 길에서 허송세월 해야 하나 했는데 어떤 경로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쿠르디스탄의 도지사 되는 분과 연락이 되어 가까이 있는, 의료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매일 다른 학교로 다니며 의료, 아동 사역을 얼마든지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에 감격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오는데 군인들이 탄 차가 우리 버스를 호송해 주어 마을로 들어갈 때 땀뻑하고 당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 느껴졌습니다.

그곳의 초등학교에 도착하여 의료팀과 안정사역은 각 교실에 clinic을 차리고 어린이 사역팀은 교실과 운동장을 오가며 구김살 없이 순진해 보이는 어린이들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학교를 찾아가 사역을 하면서 이 모든 수고가 새롭게 정착하신 현지 선교사님 가정의 장래 사역에 도움이 되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는 현지의 영혼들에게 도

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설치된 임시 clinic에는 학교 직원, 학생들, 마을사람들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었으나 모두 질서 정연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통역하며 자리 정돈해 주는 현지인 동역자의 수고와 이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면서 참을성 있게 질서 지키며 기다려주는 쿠르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때마침 라마단 기간 중이어서 모두들 금식하는데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명령인지라 지병이 있는 분들은 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아 혈압, 혈당이 상상을 초월하게 높은 방문자들이 많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도자인 Imam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금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지만 이분들은 알라의 명령을 거슬리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펄쩍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이들도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운동장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중에 탈수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학을 무시한 종교의 교리가 가져온 폐단이라 하겠으나 우리도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통역하는 젊은이들 중 크리스천이 몇 명 있어서 반가웠지만 대부분은 무슬림인지라 그들도 안마시고 열심히 도우며 견디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사역을 오후까지 하고 센터에 돌아와 이른 저녁을 먹고 나면 난민 캠프에서 나와 독립해서 살거나 오래전부터 정착해 있던 예지디인들의 마을로 통역과 함께 방문하여 노방전도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지디인들도 어찌나 친절하고 기쁨으로 손대접을 하는지 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행동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구약시대의 손 대접하던 친절한 근동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살아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나와 한 팀이 된 안순자 선교사님이 가지고 간 복음 팔찌를 돌려 앓은 가족에게 끼워주시며 그 팔찌의 뜻을 설명하신 후 어려운 일이나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겠다고 하시니 집주



인이 자기의 아픔을 술술 털어놓아서 놀라웠습니다. 자기의 조카가 독일에서 살고 있었는데 혐오범죄의 대상으로 살해당해 그 장례식에 다녀왔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나도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복음 팔찌를 영어로 설명하면 크리스천인 쿠르드 청년이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의료사역할 때 나를 도와 통역 담당하는 자매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크루드 무슬림인데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모든 사역이 끝난 저녁에 팀 전원을 그 집에 초대하여 다과를 대접하며 온 가족이 환대를 해주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선입견이나 거리낌은 다 사라지고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기에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날 드디어 sharia 에지디 난민 camp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가슴이 설레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전과 달리 tent가 시멘트 블럭 집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기뻐했는데 clinic에 오는 어른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두웠고 아이들은 전에 보았던 부침성있고 활기찬 모습이 아니라 서로 밀고 밟으며 나누어 주는 선물을 먼저 받으려고 수라장을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에 놀랐습니다. 통제

불능상태에 이르자 아이들이 다치는 불상사라도 일어날까 염려되어 황급히 사역을 거두어 그 camp을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왜 그렇게 변했을까? Pandemic 동안 외부로부터 발길이 끊어져 그들 마음속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까? Camp를 나가서 독립하여 새 삶을 개척해 사는 주민도 있는데 그들은 UN에서 주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몇 년을 camp에서 살다보니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었나 하고 우리 나름대로 추측도 해 보았습니다. 한편 하나님도 저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난민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출발 전 선교준비 하면서 stress도 많이 받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불평도 많았는데 막상 선교현장에서는 이사야 55:8-9, 11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땅보다 하늘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

몽골과 이스라엘 선교 대회 참가



글 | 장말란, 한국지부 이사

할렐루야!

보르항 불 생, 보르항 불 생, 보르항
불 생. 티르 불 생 나아다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일행은 몽골어로 찬양을 드리며 울란바토르 공항을 지나 초원을 달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바닷길과 하늘길이 막혔던 것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여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7월 29일~8월 5일 몽골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부산에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직항로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몽골에 도착하니 광대한 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이름 모를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몽골은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국가 중 한 나라입니다. 몽골의 여름 날씨는 현지 선교사님 말로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극찬할 정도로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한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살아난 이들은 여행도 하고, 쉬도 가지면서 마음껏 여름을 지냅니다. 여름을 잘 지내지 못하면 다음에 오는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

다고 합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라 빠릅니다. 몽골은 인구 350만 정도의 작은 국가이며, 수도 울란바토르에 전 인구의 70%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혹독한 대륙기후에서 유목을 하는데 적합하게 고안된 조립식 가옥으로 조립과 해체가 쉽고 겨울철 보온과 여름철 통풍이 탁월한 '게르'에서 생활했습니다. 유목민들은 지금도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몽골은 모계사회이며, 그들은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늘은 몽골족의 최고의 숭배대상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굳게 닫혔던 몽골의 교회 성전문, 그리고 출입금지 봉쇄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곳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목청껏 찬양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이번에 한인선교사님이 개척한 몽골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몽골은 한인 선교사가 선교한지 3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뿌리가 약하고 신학적인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3일에 걸쳐 몽골 한인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집회는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세미나는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창세기 1장 - 요한 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는 세미나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

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자인 김인식 목사님은 미주 장신대학원 교수이시며, 웨스트힐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33년 시무하면서 훌륭한 이민교회로 성장시킨 신실한 목회자로서 해외한인장로회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김웅자 사모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20대초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죽음 직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 기도하면서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시키신 분입니다. 몽골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과 목회자님들에게 큰 도전과 성령을 보는 눈을 열어 주셨고 선교사님들에게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고 한국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저자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CWMI(Christian World Mission for Israel)에서 후원하고 주최한 이스라엘 선교세미나에 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0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으로 무산되고 2022년 9월 15일-21일의 7박 8일간의 선교세미나 일정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흩어져 있던 한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캄보디아, 독일, 케냐, 카자흐스탄, 러시아, 튀르키예 등 20여개국의 50명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세계 한인 선교사 성경 빅 픽처를 보라”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성지순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로 놀라운 나라입니다. 1948년 4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이스라엘은 2600년 만에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이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전쟁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6일 전쟁으로 (1967년 6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시편 118:23).”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땅이며(창

22:14),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신16:11)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역대하 3:1)이며,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고 죽으신 곳,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곳이며,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기적이며 구속사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며(출4:22), 하나님의 눈동자이며(슥2:8), 축복의 통로(창12:4)이며, 제사장 나라(출19:5-6)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집회에 김인식 목사님, 김웅자 사모님, 또한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Messianic jew인 에이탄 쉬쉬코프, 아셀 인터레이트 목사님, 요셉솔람 장로님 등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성지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길로도 걸어갔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과 시장으로 붐비는 곳이었지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갈릴리 천사에서 성찬식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한 갈멜산에 가서 기도도 하였습니다. 홀로코스트에도 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대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갈릴리에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여정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성경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입니다. 몽골과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캄보디아 몬노롬 단기 선교 보고



글 | 한명자 (한국지부 총복지회장)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21

샬롬! 2022.8.1-8.6, 총 5박 6일간 금관 교회의 캄보디아 몬노롬으로의 단기선교를 계획하시고 은혜안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선교는 몬노롬에 계신 성진숙 선교사님의 요청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관교회의 붕어빵 전도팀은 2번의 붕어빵 세미나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영혼구원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모든 팀원들은 노하우를 몬노롬의 현지 사역자들에게 전수하여, 붕어빵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번 단기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몬노롬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부터 동남쪽으로 150km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몬노롬 선교센터는 2천평의 대지에 교회와 유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비전을 가진 의료센터가 오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8월 3일이 선교센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당일 주민들과 귀빈들의 섬김을 맡아 붕어빵과 각종 다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금관교회 붕어빵 선교팀은 캄보디아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도하고 체험하였습니다.

다. 이곳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을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 이곳 사람들을 품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 붕어빵전도를 위한 한 달의 기도회와 준비

금관교회의 붕어빵전도는 2015년 오병이어 전도 세미나로 시작되었습니다. 금관을 비롯하여 주변 마을의 영혼구원을 위해 매주 붕어빵을 굽고 주님을 알리기 위해 매주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활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며 맡겨진 사명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로의 출국을 한 달 앞두고 매일 저녁 팀원들이 모여 사도행전을 읽으며 기도로 캄보디아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캄보디아로 우리 팀을 보내심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사도행전 11장 21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향기를 남기고 올 수 있도록 온 팀원이 힘을 다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팀의 사역은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붕어빵 사역과 어린이 사역입니다. 붕어빵 사역은 현지 사역자들에게 반죽 만드는 방법, 기계를 다루



는 방법, 굽는 방법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과 선교센터가 오픈하는 날 주민들과 귀빈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역은 선교센터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붕어빵 사역을 위해 붕어빵 굽는 기계를 먼저 현지로 보냈고,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날 현지 재료 상황을 보고 반죽을 연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반죽의 질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센터가 오픈하는 날 사용할 재료는 한국에서 공수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사정에 맞는 재료로 할 수 있는 반죽 레시피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연락하며 레시피 연구를 병행했습니다.

아이들 레크리에이션은 100명 가까운 아이들을 혼자 맡았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직관적으로 놀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기과 공기, 축구공, 물풍선 등을 준비했습니다.

2. 선교센터 꾸미기와 붕어빵 섬김 사역

마을 주민들과 귀빈들이 방문하는 날을 앞두고 있었기에 소박하지만 꾸밀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해 가서 다 함께 꾸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몬노롬 선교센터에는 주민들에게 기초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몬노롬을 비롯하여 주변에는 의료 인프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몬노롬 선교센터의 존재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식에는 주민들 뿐 아니라 신문사 및 TV 기자들과 지역의 상원의원들 및 경찰관들이 참석했고 감사하게도 이들을 모두 섬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개관예배가 현지 전도사 Mean의 인도로 드려졌고, 의료센터에서는 성진숙 선교사님과 상원의원들, GLS의 김정남 대표가 함께 의료센터를 놓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3. 붕어빵 전수 사역과 어린이 사역

현지 사역자 씨나 전도사와 그 동생 쏭이는 자매, 성진숙 선교사님께 붕어빵 반죽 레시피와 기계를 다루는 방법, 굽는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8월 3일은 붕어빵 전수보다는 주민들과 귀빈들을 섬기는 사역이 중심이 되었고, 8월 4일 조용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오전 10시경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지런한 아이들로 인해 오전 7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온 몸을 써가며 함께 제기를 차고, 축구공을 차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가져간 물풍선을 함께 던지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4. 팀원들의 소감으로 보고서를 마치려 합니다.

- 캄보디아 봉어빵 전수 및 선교라는 큰 프로젝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것 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고 순종하며 기도로 진행했습니다 자칫 내가~~ 아니면 우리가~~라는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배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금관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그곳에 봉어빵 전수와 전도 집회가 잘 이루어졌음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몬노롬 선교센터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봉어빵이 큰 역할 할 것 믿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 이번 캄보디아 봉어빵 선교로 보내주셔서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봉고차를 타고 프놈펜에서 몬노롬까지 이동하는 중에 차 바퀴가 펑크가 났는데도 하나님 은혜중에 감사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몬노롬 선교센터의 개관식에 내빈들을 섬기게 하시고 은혜중에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진숙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위해 몸바쳐 충성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 몬노롬에서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험도 했지만, 너무 경이로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 주님은 제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셨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신 성진숙 선교사님께서도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교만한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셨습니다.
- 캄보디아 봉어빵 전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봉어빵을 받아가는 그곳의 많은 주민과 어린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니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몬노롬 선교지가 더욱 활성화되길 원하며 우리 봉어빵 팀과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 되어 더 큰일을 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신입 평생회원

평생 회원은 본 재단의 교육, 봉사, 선교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자 하는 회원으로서
일백만 원 이상이나, 미화 일천 불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입니다.

미주 및 해외 신입 비전 및 평생 회원 (2022년 7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회원NO	이름	소속	회원NO	이름	소속
비전회원	서명룡	국제본부 특별감사	578	Cecillia Chang	박혜숙이사 지인
비전회원	신지은	국제본부 이사	579	Justin Kim	석소정이사 아들
576	Ellisa Jo	조영숙회원 딸	580	나지혜	UCLA 동문. NP
577	김현애	예수간호대학 동문			



비전회원 서명룡
국제본부 특별감사



비전회원 신지은
국제본부 이사



577 김현애
예수간호대학 동문



580 나지혜
UCLA 동문. NP

한국지부 신입 평생회원 (2022년 5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회원NO	이름	소속	회원NO	이름	소속
617	동광분	삼척시 보건소	619	김종경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18	강옥남	TESTONIC 환경기업 대표	620	민병숙	전) 경기도 도의원



617 동광분
삼척시 보건소



618 강옥남
TESTONIC 환경기업 대표



619 김종경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20 민병숙
전 경기도 도의원

미주 및 해외 지부 후원금 내역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후원교회

성서장로교회(\$1,400) 남가주기쁨의교회(\$1,000)
열린문교회(\$800)
세인트루이스한인장로교회(\$1,060)

선교후원금

강정옥(\$2,800) 김윤옥(\$3,000) 김혜영(\$500)
김성자(\$500) 윤귀남(\$200) 석소정(\$400)
장윤재(\$1,000) 김정식(\$20) Elisa Om(\$500)
Helen Yoon(\$100) Debbie Yoon(\$300)
Christine Suh(\$330)
United care hospice(\$1,000)
First recovery home health (\$1,000)
Angeles College(\$1,000)
Cecilia Chang(\$1,000)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유명자(\$1,000) 이일순(\$1,000) 이병덕(\$3,000)
이갑순(\$6,000)

평생회비94

Elissa Jo(\$1,000) Justin Oh(\$300)
오수희(\$180) Justin Kim(\$1,000)
나지혜(\$1,000)

운영 지원

Terry Choi(\$3,900) 한진범(\$1,100)
안수빈(\$4,250) 김명자(\$2,000)

장학금

Suh(\$4,700) Alexander Kay(\$1,850)
박혜숙(\$10,000)

이사회비

강정옥(\$700) Angela Suh(\$400)
Jennifer Kim(\$600) 이영현(\$600)
김명자(\$500) 석소정(\$1,000) 신지은(\$700)
유정숙(\$1,200) 박정우(\$200) 마리아권(\$1,200)
박혜숙(\$600) 이일순(\$1,200) 이인자(\$400)
최윤경(\$200)

지정후원금

기도회 및 이사회 식비: 이일순(\$200)

총회 후원:

Christine Suh(\$2,340) Ruth Frendl(\$3,000)

성진숙 선교사 후원:

성진숙(\$20,000),
Orlando 중앙침례교회(\$10,180),
생수교회(\$1,850), 김미경(\$2,500),
나성숙(\$500), 오재선(\$500), Terry Choi(\$300),
Pearl Son(\$300), Christin Suh(\$500)

박순복 선교사 후원: 강정옥(\$5,600)

임한진 선교사 후원:

박호순(\$1,500), 오재선(\$500), 한진숙(\$300)

서은성 선교사 및 자녀 후원:

오재선(\$500), 박혜숙(\$600), 서승렬(\$2,000)

최관신 선교사 후원:

김명자(\$1,500), 유잔박(\$500), 마리아권(\$1,000)

Wellspring for life 후원: 박혜숙(\$1,000)

과테말라 갈릴리 공동체 후원: 박혜숙(\$2,000)

방영숙 선교사 후원: Jeanne Park(\$300)

이갑순교수 후원: Blackbaud Giving Fund(\$6,000)

연과대 20년사출판비후원: 마리아권(\$500)

징검다리 모임 후원:

강정옥(\$2,300), Ezra Kim(\$500), 김선욱(\$200),
Pearl Son(\$150)

TPAN 후원: 서명룡(\$3,000)

회관 정원조성비: 서명룡(\$7,000)

마리아권 장학금: 권오정(\$5,975)

한국지부 후원금내역

(2022년 5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단위(원)

북한간호사업 재건기금(NKNRF)

고진숙(7만) 광인자(7만) 김소연(12만)
엄봉순(14만)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기금

권지혜(21만) 김경숙(7만) 세대로교회(80만)
박은정(12만) 소향숙(50만) 이영미(7만)
이인희(7만) 전인숙(7만) 유숙자(70만)
부산기독교간호사회(30만)

옥합회비

신현숙(28만)

비전회비

김옥인(70만) 정정자(14만)

평생회비

강옥남(30만) 김성경(60만) 김수옥(60만)
김정란(30만) 김종경(30만) 민병숙(40만)

캄보디아 장학금

양혜리/이우일(35만)

간호대학생 장학금

박숨미(20만) 박형란(20만) 조미경(20만)
최미영(20만)

단위(원)

선교/사업 후원

강명미(14만) 강명희(7만) 권인각(7만)
김경순(14만) 김귀자(7만) 김대회(7만)
김선희(14만) 김수희(14만) 김신혜(7만)
김양남(7만) 김양희(21만) 김영아(14만)
김영희(7만) 김진자(5만) 김현주(7만)
민자경(6만) 박금실(12만) 반신자(7만)
서강유(7만) 서정윤(7만) 신경훈(5만)
양영란(10만) 오경화(14만) 오상준(1.4만)
오유미(7만) 안춘지(7만) 오은경(7만)
우진경(14만) 이두임(7만) 이보영(14만)
이정옥(21만) 장말란(21만) 조은희(35만)
전은경(21만) 최동희(7만) 한선규(7만)
황국희(7만) 황옥남(35만)

지정후원금

이영현 미국지부회장: 서울 늘푸른침례교회 (240만)
콩고 무부야 간호대학 실습기자재: 황옥남(305만)
차드 제4보건진료소: 동광분(20만)
신기조 선교사: 성영희(20만)

총회후원

황옥남(50만)

임원회비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연간 40만원이며 그 외지역은 20만원임)

완남 강명미, 강채원, 김경숙, 김정희, 김현옥, 서동희,
성영희, 이혜란, 이홍자, 전은경, 정정자, 조미경,
최정숙, 이은숙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8620 e-mail: wcnfusa@gmail.com

회원가입신청서(Membership Application)

회원 정보	성명	영문	생년월일	
	Name	한글	출신학교/학위	
	휴대폰		직장명/직위	
	이메일		출석교회/직분	
	주소			

회원 구분	☐ 일반 회원 매월 \$10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원하시는 납부 방법에 X표를 하십시오. \$10 () \$20 () \$30 () \$40 () \$50 () 기타 \$ ()
	☐ 평생 회원(회비: \$1,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 ☐ 일시불 분납 () 회
	☐ 비전 회원(회비: \$10,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 ☐ 일시불 분납 () 회

- ☐ 선교 후원금 (내용: 금액:)
* 선교후원금은 선교지간호대학 및 기관 지원, 선교사후원(이름 명시), 선교지학생 장학지원, 북한간호사업재건기금, 운영지원 기타(내용명시)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
* 평양과기대에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후원금입니다.

컬 러 사 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시거나 사진파일을 e-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Check은 WCNF 앞으로 쓰시고 본 신청서와 함께 재단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 Tel (310) 324-8620 e-mail: wcnfusa@gmail.com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행으로 직접 보내실 때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입금 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바랍니다. -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325157397451 - Hanmi Bank: Routing#12203939, Account#500298650
---	---

- 비전회원은 본 재단의 목적인 교육, 봉사, 선교에 비전을 갖고 \$10,000 이상 납부한 회원이며, 본 재단의 명예이사로 추대합니다.
- 평생회원은 본 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찬동하며,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코자 하는 회원으로서 \$1,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입니다.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날짜: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 지부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 Korea

TEL 02-764-1227 FAX. 02-764-1252

wcnfkorea@hanmail.net

(우) 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센츨리 오피스텔 910호

회원이입신청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집 전화	출신학교/학위		
	휴대폰	직장명		
	이메일	출석 교회		
	주소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이 필요 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구분	☐ 일반 회원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CMS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 ☐ 2만원 ☐ 3만원 ☐ 5만원 기타 월 () 만원	
	☐ 평생 회원(회비: 일백만원) ☐ 일시불 분납 () 회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이체나 CMS제도를 이용하여 1년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비전 회원(회비: 일천만 원) ☐ 일시불 분납 () 회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이체나 CMS제도를 이용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선교 후원금 (내용: 금액:)

* 선교지 간호대학 및 기관 지원, 선교사 후원 (이름 명시) 선교지 학생 장학지원, 북한 간호 재건, 운영지원, 기타 (내용명시) 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

- 평생 회원과 비전 회원은 본 재단의 목적인 교육, 봉사, 선교에 비전을 갖고 본 재단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하고자 하는 회원 으로서 비전 회원은 명예 이사로 추대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추천자:)

컬 러 사 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시거나 사진파일을 e-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 입금계좌안내 】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1005-902-610283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신한은행 100- 031 - 06648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국민은행 089501- 04- 24145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입금은행에 체크해주시고 입금 후 연락 바랍니다 (전화,문자,e-메일)
--	--

CMS 출금 이체 신청서

CMS (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 직접 은행에 가시는 불편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E-mail 또는 우편으로 본 재단으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의 감독하에 출금은행에서 WCNF 계좌로 입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수납기관

수납기관 명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대 표 자	성영희
사업장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사업자등록번호	210 - 82 - 78154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출금계좌 예금주 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	
금융기관 명		출금계좌번호	
신청인 명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주소		예금주 휴대전화	
신청인 주소		신청인 휴대전화	
월 입금액	원	출금 시작 년 월일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 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 5년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TNB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 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출금 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 (인)

주)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WCNF 본부 및 각지부

* 각지부는 지역별 지회나 분야별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 WCNF 재단

이사장	이송희
이사	최명희

■ 국제 본부

1946 w 147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 8620
e-mail : wcnfusa@gmail.com

총회장	안젤라 서
제1부회장	마리아 권
제2부회장	조인숙
사무총장	김명자
감사	이일순
감사	배옥례
상임이사	유정숙, 강정옥, 김연수, 박혜숙, 신지은, 이영현, 장사라, 스틸라 박, 제니퍼 김, 에즈라 김

■ USA 지부

Alabama	채정자
Boston	조종희
CA,Central	권마리아
CA,North	김복상
CA,San Jose	이일순
Chicago	이복선
Florida	홍찬길
Georgia	안옥자
Hawaii	서지자
Indiana	정귀남
Illinois	이(최)순자
Maryland	양(권)윤자
Michigan	홍(남)문숙
Missouri	이(문)광자

■ USA 지부

North Carolina	김연수
New York	주명숙
Ohio	이명숙
Rhode Island	이(김)영옥
San Francisco	김혜련
Texas,Dallas	최영숙
Texas,Austin	김은자
Texas,Houston	조상수
Uni.Verginia	강정옥
Washington	김지니

■ 호주 지부

e-mail :
wcnfaustralia@gmail.com

회장	최부옥
부회장	김현남
감사	천옥영
감사	류영숙

■ 캐나다 지부

회장	곽나미
Toronto	송신자
Vancouver	최영자

■ 독일 지부

회장	김연숙
----	-----

■ 뉴질랜드 지부

회장	조영옥
----	-----

■ 한국 지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Tel : (02) 764-1227
Fax: (02) 764-1252
e-mail : wcnfkorea@hanmail.net

회장	성영희
감사	강명미, 강채원
부회장 (PUST간호대설립위원장)	유숙자
부회장 (재정위원장)	이은숙
부회장 (선교위원장)	최정숙
부회장 (국제본부교육위원)	황옥남
부회장 (NKNR위원장, 회무)	김정희
이사 (교육위원장)	이병숙
이사 (홍보위원장)	전은경
이사 (PUST간호대설립부위원장)	소향숙
이사	김경숙 김현옥 박언아 서동희 이혜란 이홍자 장말란 정미아 정정자 조미경 최혜옥

• 지회

서울지회장	강윤숙
경기지회장	오진희
인천지회장	김지윤
강원지회장	서임선
충남지회장	강현숙
충북지회장	한명자
대전지회장	김현주
대구지회장	박희옥
전남지회장	오향순
전북지회장	김현옥
부산지회장	정정자
보건진료원회장	한명자
보건교사회장	이석희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제12차 정기총회/국제학술대회 및 Vision Trip

일 시 2023년 1월 27일(금) - 29일(일)

주 제 “선교, 하나님의 기쁨” (이사야 62:4)

장 소 캄보디아, 프놈펜 (Cambodia, Phnum Penh)

일 정 1월 27일 오전에 등록 및 개회하여 29일 오전까지
총회와 국제학술대회 및 Vision Trip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9일 오후부터는 개별일정이 가능하며 상세한 일정은
www.wcnf.org의 공지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차신청 2022년 10월 31일 · 2차신청 2022년 12월 30일

제 12차 WCNF 정기총회 참가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C.P.
소속지부	미국(), 한국(), 호주()	e-mail	
문 의 처	미국 wcnfusa@gmail.com / 한국 wcnfkorea@hanmail.net 호주 wcnfaustralia@gmail.com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재단의 발전을 도모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통권 제 56호 / 2022년 12월 발행 / 발행인 : 안젤라 서 / 편집인 : 전은경

<http://www.wcnf.org> E-mail:wcnfusa@gmail.com / wcnfkorea@hanmail.net

미주본부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8620 안젤라 서 총회장 CP. 949-933-1287(국가번호 +1)

한국지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우)06653
Tel. (02) 764-1227, FAX. 02-764-1252 성영희 회장 CP. 010-9933-2901(국가번호 +82)

호주지부

e-mail: wcnfaustalia@gmail.com
Tel. 411-879-778(국가번호 +61)